박영효의 경제사상과 제주에서의 실천

진 관 훈* · 고 광 명**

요 약

이 글은 박영효(朴泳孝, 1861~1939)의 경제사상과 유배지 제주에서의 실천 내용을 살펴본 것이다. 개화파의 주역으로 알려진 박영효는 정변으로 일본에 두 번 망명하였고 1907년 귀국 후 다시 제주도로 유배되어 1년의 형기를 마쳤다. 그러나 유배가 끝난 뒤에도 서울로 올라가지 않고 제주에 정착하기 위해 땅을 매입하여 농사를 짓는 가하면 당시 제주도민들과의 교류를 활발히 하여 농업, 교육, 문화, 농촌생활 등 각 분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효는 경제전문가는 아니었지만 미국과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 자본주의적 서양 경제학의 영향을 받아 고전학파 경제이론에 대한 이해가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영효의 경제사상과 경제개혁론은 建白書(내정개혁에 대한 1888년의 상소문)에 잘 나타나 있다. 박영효의 경제사상을 요약하면, 첫째 민주적이고 자유주의적 경제관, 둘째 사회분업론, 셋째 균형적 산업발전론, 넷째 재정절용주의 이외에도 화폐론, 유통합리화, 도량형제도의 통일, 징세의 합리화, 도로, 운수 등 교통문제 등 사회기반 시설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국내 경제개혁에 적용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경제사상을 가진 박영효는 제주에서의 유배생활이 끝난 후에도 귀경하지 않고 제주에 정착할 결심으로 제주에 머물면서 그가 가진 경제사상을 제주에

* 제주대학교 관광과 경영경제연구소 특별연구원
** 제주대학교 관광과 경영경제연구소 특별연구원

적용해 보려 하였다. 예를 들면, 제주도가 온난하고 강수량이 많은 점 등 기후풍토가 일본과 흡사하다는 점에 착안, 제주도는 일반농사 보다 특수원예농업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자신은 물론 도민들에게 개량 감귤을 비롯해 토마토, 가지 등 원예작물을 보급하고 재배를 확산시켰다. 또한 도로나 시장, 농촌개량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당시 중앙에서 파견된 제주군수에게 건의하거나 도민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이러한 인식을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글은 이러한 박영효의 경제사상과 유배지 제주에서의 실천과정을 살펴본 것이다.

주요 색인어 : 박영효, 경제사상, 경제개혁론, 경제관, 건백서

Ⅰ. 머리말

박영효(1861-1939)는 대표적인 개화파로 김옥균 등과 함께 일으킨 갑신정변으로 인하여 두 번의 일본 망명 끝에 1907년 귀국하였으나 같은 해 9월 다시 제주도로 유배되어 제주도에서 1년간의 적거 생활을 한 인물이다. 박영효는 형 집행이 끝난 후에도 귀경 하지 않고 계속하여 제주에 머물면서 제주시 구남동(九南洞) 독짓골에 땅을 매입하여 개량감귤과 원예 농사를 지으며 농촌계몽활동을 펼쳤다. 당시 이러한 박영효의 행적은 중앙에까지 알려졌다.

황현의 매천야론(梅泉野錄)에 의하면

"박영효가 제주에 유배되어 만기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이때 시국 이야기를 하지 않고 포전(圃田)을 개간하여 과목(果木)을 심으면서 섬사람들에게 관상수(觀賞樹)를 심도록 권장하였다."고 하여 당시 국내 정치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던 박영효의 제주정착은 중앙정치판에서도 초미의 관심사였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자세한 개인적·정치적 내막이야 어쨌든, 겉으로 드러난 바에 의하면 박영효는 중앙정치, 대한제국의 미래에 대한 실망과 좌절감을 깊게 느낀 나머지 서울에 올라가지 않고 제주에 머무르면서 제주에서 그의 이상을 펼쳐 보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농업을 포함한 사회 여러 분야에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경제실천은 박영효 자신의 농사짓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주변 농가에 원예 농사를 확대 보급하는 가하면 의식주 개선, 농업개량사업 등 자신의 경제사상을 전파·보급하는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 몰입 성향이 강하다.

조선조 500년 동안 제주에는 대략 200여명의 유배인들이 다녀갔다(양진건, 1999 : 24). 그러나 대부분의 유배인들은 중앙정치에 대한 동경, 자신의 복권에 대한 열망 등으로 제주사회, 제주도민들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김정희, 김윤식, 박영효와 같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제주도민들과의 교류를 통해 문화, 교학 활동에 기여한 사람들도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박영효는 신분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과의 거리낌없는 교류를 통해 교육과 농촌개량

등 근대화 측면에 큰 영향을 미친 대표적 인물이다(제주도, 1988 : 145). 특히 그의 이러한 행적은 경제적인 측면이 강하며 지역의 경제현실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실천적 해결책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즉, 낮은 토지생산성, 봉건적이고 자급자족적인 저생산구조, 보리·조 등 곡물 중심의 작물재배, 농업, 농촌기반 시설의 절대 부족 등에 대한 상황 인식 하에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고 적극 실천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그 동안 많은 유배인들이 제주를 다녀갔지만 박영효처럼 경제생활에 참여하고 제주도 농촌에 기여한 경우는 드물다.

이상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박영효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 제주도의 유배문화, 제주 문화의 역사적 배경과 특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박영효의 경제사상과 유배지 제주에서의 행적을 역사적 인과관계 하에서 고찰하도록 하겠다.

이 글의 전개는 2장에서 박영효의 근대적 경제사상과 경제개혁안을 『건백서』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3장에서는 박영효가 실천하려고 했던 20세기 초 제주도의 농업상황과 박영효의 경제개혁 실천사례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러한 박영효의 경제적 실천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와 시사점을 살펴보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

II. 박영효의 경제사상과 경제개혁론

1. 개화파의 경제사상

주지하다시피 박영효는 개화파의 핵심인물이다. 이는 이 시대의 정치적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상이나 개혁에 대한 공통 분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박영효의 경제사상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유길준·김윤식·김옥균

등의 경제사상의 배경과 흐름을 비교·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이 글에서는 유길준의 경제사상을 중심으로 개화파 경제사상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유길준의 『서유견문(西遊見聞)』을 중심으로 개화기 경제사상을 살펴보면, 그는 이익 추구 성향을 전제로 하고 있다. 선비들이 이익만 추구하면 하늘로부터 받은 본성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여 상업을 천시하였으나, 이익을 취하는 도리와 행실이 정당한가 아닌가가 문제이지 일에는 귀천이 없다. 그런데 상인은 정직과 신뢰를 지켜야 할뿐만 아니라, 이익 추구의 방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염치와 의기로 이익 추구욕을 절제해야 하며, 정부가 광명한 도리와 정직한 제도로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길준이 염치와 의기, 그리고 광명한 도리라는 유교윤리로 경제적 동기를 절제하자고 한 점에서, 자기 수양과 제도로 경제적 동기를 적절히 조율하려는 유형원이래 실학자의 문제의식과 통한다.

그런데 유길준은 경제적 동기관을 중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경쟁을 사회원리로서 삼고 계약의 성실한 준수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추구하였던 점에서 실학사상보다 진전을 이루었다. 1883년 집필된 「경쟁론(競爭論)」에서 "일국의 성쇠강약(盛衰强弱)이 경쟁의 대소고비(大小高卑)에 달려 있으니, 만일 일국이 경쟁할 바가 없다면 부강하며 문명화한 경지에 나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보전하지 못한다"고 하여 경쟁을 중시하였다. 『서유견문』에서는 경쟁의 사회적 기여는 크지만, 경쟁하는 방법을 오용하면 큰 화가 발생하므로 공정한 경쟁을 위한 교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법률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게 되면서 개인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이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 법률 제정의 근본취지는 자유를 보장하여 누구나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유길준이 열거한 자유 가운데 경제적 동기를 보장하는 영업의 자유가 있고, 정직한 방법으로 사유 재산을 사용, 처리하는 자유도 있다. 후자인 재산권은 가장 긴요하고 중요한 권리라는 것이다.

재산권의 옹호는 김윤식의 『호부론(護富論)』에서도 잘 나타난다. 서양 지식의 영향을 받아 갑신·갑오개혁기에 전개된 「호부론」은 근면과 능력의 성과물인 부를 옹호하고 부자가 산업을 일으켜 가난한 이를 먹여 살리는 것을 긍정하고 균산책이 경제하려는 인센티브를 박탈하여 모두 가난하게 만드는 무익한 일로 비

판하였다. 「호부론」은 부에 대한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경제적 동기에 대해서도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셈이 되었다. 유길준은 1891년 작성된 『지제의(地制議)』에서 인민이 이익을 선행보다 좋아하므로 정전제를 시행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 김윤식보다는 소극적인 관점에서 토지재분배의 불가함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유길준은 사리의 추구를 인정하고 재산권을 옹호하면서, "빈민구제사업이 인정의 으뜸이라고도 하지만 실상은 정부로서 부득이하여 행하는 조그만 일"이며 정작 큰 일이란 국민들로 하여금 "자주적인 생계를 경영하여 타인에게 의탁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있다"며 개인의 자조를 권장하였다. 그리고 국민들의 자주적인 역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부의 간섭에 반대하였다. 호혜와 재분배를 옹호하는 전통 유학의 경제사상은 사리 추구를 억제하면서 정부에게 민생 안정을 보장할 책임을 지웠는데, 사리의 추구를 인정하면서 개인의 자조를 권장하는 유길준의 견해는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근대 경제사상의 특성을 보여준다.

유길준은 구미의 부국강병이 '상도성흥(商道盛興)'에 기인하므로 조선의 부국강병도 상업에 달려 있으며 "상권을 세운 후에야 밖으로부터 수모를 막고 안에서 실효를 이룬다"다는 발상 아래, 1883년 「상회규칙(商會規則)」을 작성하였다. 그는 "상업은 역시 국가의 대본이라, 그 관계의 중대함이 농작(農作)에 뒤지지 않아서 정부의 부요(富饒)함과 인민의 번성이 실상은 이 방도로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고 하였고(14편), 「세제의(稅制議)」에서 우리 나라는 상업이 발달하지 못하여 가난하다고 보았다.

또한 개화파는 국제무역을 중시하였다. 김옥균은 1882년 작성한 「치도약론(治道略論)」에서 금일의 선무(先務) 중에 해금(海禁)을 널리 열 것을 포함하였다. 유길준은 서양 각국이 물품의 제작과 무역으로 국가의 대본을 삼는다고 보았다. 그는 「지제의」에서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여서 운송이 매우 편리하여 상업에 이로운 나라이나, 화물이 유통의 방도를 잃고 드디어 상업을 병들게 하는 원천이 되었다"고 개탄하였다. 박영효는 상사(商社)의 해외진출을 장려한 방안도 거론하였다. 《한성순보》 1884년 5월 25일자와 6월 4일자의 「부국론(富國論)」에 의하면, 나라가 강하게 되려면 반드시 먼저 부유해져야 하고 부국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통상이었다. 동도서기론에 입각한 정부의 정책도 국제무역

의 진흥을 중시하였다.

아울러 유길준은 이러한 상업중시관념을 발전시켰다. 자유무역은 "세계의 학식과 생민(生民)의 복록(福祿)을 증진하기 때문에" "현세에 바꿀 수 없는 법"이며, 외국의 자유통상 요구는 "그 토지와 인민을 욕심내어 넘보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인생의 미사(美事)를 남과 같이 하여 우리의 남는 것으로 상대편의 부족한 것을 돕고 상대편의 남는 것을 취하여 우리의 부족한 것을 보태"기 위한 것이라 하여, 자유무역이 쌍방에 이익을 증진함을 인식하였다. 그런데 "상업은 물화(物貨)로 하는" 전쟁이어서 "물화가 치졸한 자는 상업의 대권을 잃어서 국중(國中)이 이병(利柄)을 탈취 당할" 것인데, "새로 개국하는 나라의 인민은 절제없는 군사와 같은 즉, 그 적수가 될 수 없으니 반드시 여러 번의 단련이 있은 후에 그 쟁리(爭利)하는 방책을 처음 얻을 것이라"하여, 경쟁의 단련을 통해 상권을 회복하기를 기대하였다(14편).

개화파는 동도서기파보다 상업중시관념에서 한층 투철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회사와 같은 근대적 제도를 도입하기를 주장하였다. 김옥균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한성순보》의 「회사설」은 회사제도를 소개하고 자본과 영업력을 결집한 회사가 서양의 부강의 기초이나, 조선은 이러한 제도가 없어 상무(商務)와 국세가 부진하므로 정부가 장려할 것을 주장하였다. 물론 상회사 뿐만 아니라, 제조회사·개간회사 등의 육성도 고려되고 있었다. 그리고 변법개화파는 영업자유의 이념에 한층 투철하였다. 이것은 영업자유 이념을 중시한 『서유견문』, 행상업의 관할권을 가진 혜상공국(惠商公局)을 철폐하자는 갑신정변의 정강, 도고의 철폐를 추진한 갑오개혁 등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그렇다고 해서 개화파가 농공업의 육성과 산업의 보호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유길준은 「상회규칙」에서 상업의 발달이 물산의 증식과 인공의 흥기에 달려 있다고 하여, 시장발달을 생산의 발달과 결부하여 파악하였다. 그에 의하면, 상업과 농업이 가장 중요하였고, 제조업은 시장이 없다면 생산물을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14편). 그는 「지제의」에서 상업작물의 재배가 민생을 두텁게 하므로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귤과 차의 재배를 장려하여 수출작물로 육성하자고 주장하였다. 유길준은 공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그에 의하면, 제조업은 국가의 강약과 빈부에 깊은 관계가 있으며(12편), 제조기술이 낮은 국가

는 상업의 대권을 잃어 이익을 빼앗기고 말 것이고 상권을 한번 잃으면 회복할 날이 묘연하며, 천연품을 수출하여 가공품으로 수입하는 나라는 빈곤한 형세가 가속화될 따름이었다(14편). 박영효는 상소문에서 국가의 부윤(富潤)은 "농사·공업·어렵·목축 등을 일으키는" 일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여, 권농상(勸農桑)·흥상공(興商工) 등의 각종 산업육성책을 제시하였다.

유길준은 근대화를 위한 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기술발전도 중시하였다. 그는 기술과 발명의 장려가 부강을 도모하는 이치이고, 기예를 높여주는 교육이 공업을 발흥시킨다고 보았다(5편). 동도서기론이 수용하려는 서기의 일차적이고 기본적인 대상은 기술이고, 그러한 이념에 입각한 정부도 근대 기술의 수용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근대경제의 기본 토대는 시장경제이며, 그 기본 특성은 공업화였다. 유길준을 비롯한 개화파들이 상업을 근본으로 보아 그 육성을 중시한 것은 시장경제의 의의를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 개화파는 공업화가 근대경제의 기동력임을 충분히 인식한 것 같지는 않으나, 실학자보다는 공업을 한층 중시하고 근대적 공업의 도입을 위해 노력하였다(김영호, 1968).

유길준은 오륜의 실천이 행실의 개화라 하여, 유교윤리를 고수하였다. 그런데 행실의 개화는 다양한 개화의 한 측면에 불과하고 동도서기론에서 처럼 근본적인 의의를 가진 것도 아닌 점에서, 개화에서 유교윤리는 제한되고 일면적인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위상이 낮아졌다. 그에게서 개화란 "천사(千事)와 만물(萬物)을 궁구(窮究)하여 일신(日新)하"는 것이란 점에서 그 핵심은 유교윤리라기보다는 사물을 연구하는 근대적 과학기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실의 개화는 변하지 않지만, 다른 개화들은 시대에 따라 변모한다고 보았다(14편). 결국 그는 유교의 전통에 바탕한 근대화를 추구하였던 것이다.

유길준의 개화론에서 유교윤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면, 교육과 법률이 국가 권리를 지키는 근본인데, 교육은 도덕교육·재예(才藝)교육·공업교육으로 구성되며, 이것은 정덕·이용·후생의 큰 취지를 밝힌 것이다(3편). 법률은 사단과 오륜의 기강에 의거하여 제정되어야 한다(4편). 그리고 상인은 사익보다 국익을 우선해야 하고 신용과 정직을 지켜야 하며, 인간에 편리한 방도를 경영하는 일과 국부를 도모하는 일을 직분으로 삼아야 한다(14편). 「상회

규칙」에서도 상회의 목적을 "공중이익을 통한 본국 상권의 확립"에 두었다.

이렇듯 유학이 경제적 동기를 용인하고 시장친화적으로 변한 사상적 풍토에서 근대경제학이 순조롭게 도입될 수 있었다. 그것은 유학생을 통하여 처음 도입되었고, 유길준의 『서유견문』은 그 선구적 의의를 가진다. 아직 경제학 유학생이 없던 1883~1884년간에 《한성순보》가 근대경제의 정보에 관한 기사를 다수 수록하였던 것으로 비추어 보면, 근대경제학이 뿌리를 내릴 토양은 조성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근대경제이론은 갑오개혁 이후에 도입되었다. 조선말 경제사상가의 산업관은 농공상병진론(農工商倂進論), 공상주의(工商主義) 및 농본주의(農本主義)로 대별되는데, 농본주의도 유교윤리가 아니라 경제논리에 입각해 있었음이 주목된다. 즉, 농업이 지배적 산업이고 농업 발전이 상공업 발전의 토대가 되고 농업이 기초적인 재화를 생산하므로,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유무역론과 보호무역론도 소개되었다(이기준, 1985).

2. 박영효의 경제사상

일반적으로 경제사상이란 구체적 경제현상에 대한 사회경제행위의 규범이 되는 생각의 지적인 체계이다. 주로 당시의 경제체제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에 대해 각 사상들은 일정한 체계를 가지는 것으로 표현된다. 또한 경제사상은 학문이나 정책 그리고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적·역사적 환경의 산물이기도 하다.

경제사상에서 관심을 가지는 범위는 부의 원천이 무엇인가, 가격의 문제, 화폐의 문제, 사회적 정의 문제, 유효수요의 문제, 국가의 정책 등이다. 또한 경제사상은 대중의 경제행위의 지침이 되기도 한다(박경, 1982 : 276-279).

이 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박영효의 경제사상 역시 이러한 경제사상의 일반적 전개방식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즉 현실 경제문제에 대한 해결책 혹은 개혁안 제시를 목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당시 학문이나 사회적·역사적 상황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박영효의 경제사상이 당시 제주도민들의 경제

행위의 지침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박영효의 경제사상 역시 구한말 암울했던 조선의 경제상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로 이어졌으며 그 구체적 해결책은 체계적인 개혁안이 되어 제시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개혁안에 근거를 제공하는 되는 경제 이론적 사고는 기존 유학의 경제사상, 실학파의 경제사상 그리고 일본에서 오랜 망명생활을 하면서 미국의 고전파 경제학의 흐름을 간접적이나마 접하게 되고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와의 교류로 얻은 경제학적 지식들을 복합적으로 정리한 사고의 체계인 것이다.

이렇듯 박영효는 직·간접적으로 서양경제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진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서양의 근대적 경제사상을 동양사상, 주로 유학의 바탕 위에서 주체적이고 현실적용의 차원에서 받아들이려 하였다.

박영효의 경제사상은 〈내정개혁에 대한 1888년 상소문〉인 『건백서(建白書)』에 함축적으로 잘 나타나 있다. 이 글에서도 『건백서』에 나타나 있는 박영효의 경제사상을 추출해 보기로 하겠다.

1) 자유주의적 경제사상

박영효가 서구의 자유주의 사상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건백서』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의 자유개념은 19세기 청·일본 및 조선에서 서구 자유주의를 이해하고 이를 수용한 시의 일환으로서 서구의 'freedom' 관념이 소개되고 수용되는 과정을 보여준다(김현철, 2000 : 265).

박영효는 자유에 대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바가 옳다는 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후쿠자와 유키치의 정의와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다.

박영효의 자유에 대한 정의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개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해서는 안되며 각각 자유를 가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개화기 조선에서 서구의 자유주의 사상을 초기에 수용한 대표적 예이다(김현철, 2000 : 267).

당시 조선은 개항 후 정부의 신문화 수입과정에서 막대한 경비를 요했으며 특

히 일본에 대한 배상금 지불 등 비약적으로 팽창 일로에 있던 예산의 지출은 근대산업이 발달하지 못했던 당시로서는 오직 그 부담을 농민에게 전가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농민은 혹독한 과세에 시달려 그들의 참상은 날로 심해졌으며 결국 자연주의적 민란의 원인의 되었다.

한편 외국과의 통상무역이 확대되자 전근대적인 특권상인과 민간시장들 사이에 대립이 격화되자 수구파들은 전근대적 특권상인을 옹호하고 조직화하려 하였으며 재정 확보를 위해서 경제적 이권을 양도한 대가로 차관을 얻어 화폐를 마구 발행함으로써 물가앙등을 초래하였고 한편으로는 국내 경제적 상황과 관련하여 회사형태의 자본주의적 자유기업의 설립과 발흥을 고취하고 장려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박영효의 자유주의적 경제사상이 형성·발전되기 시작한 것이다.

박영효는 민권시장을 통한 군민동치의 정치개혁을 이룩한 다음 근대적 국민국가를 실현하고 자강 부국의 방법으로서 자유주의적 경제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성리학적 자본주의 경제관으로부터 상공업 중심의 자본주의적 경제관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데 그러한 전환은 인간을 도덕적 존재가 아닌 공리주의적 존재로 인식하는 인간관의 전환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국가의 부강은 개개인의 자기가 원하는 바를 완수하려는 욕구와 하지 않으려는 욕구가 많고 없음에 달린 것"으로 여겨 개인의 부의 축적이 국가 부강의 기초로 인식하였다.

한편 박영효는 "인간이 세를 내고 봉공하는데 본의는 자기 집안의 행복 안정을 보호하자는 데 있으므로 정부가 인민에게 조세를 징수할 때는 사전에 납세의 필요성을 가르치고 계몽한 이후에 해야한다."고 하면서 인민은 국가 사회 전체의 공리성을 위한 봉사의 존재보다는 인민 그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그의 민주적이고 자유주의적 경제관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박영효는 인민의 영업활동에 대해서도 자유주의적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즉 그는 고가와 통용되는 화폐의 교환가치 그리고 모든 물품의 가치를 정부에서 정함은 불가하며 어떠한 물건을 막론하고 도매로 그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정부가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배제하고 자유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되도록 유도하며 독점판매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지적하여 도매

혁파론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그의 주장은 시전의 전매행위와 상업자본의 도매행위를 제한하거나 혁파하고 육의전의 전매물품을 제외한 일체의 상품을 자유롭게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한 실학자의 의견과 흡사하다. 이것은 박영효가 실학자들의 영업의 자유론에서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민(保民)에 중점을 두면서 서구제국과의 무역을 통하여 조선의 경제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 그의 경제관의 근본이었다 이것은 국부를 성취하여 자립자족지력(自立自尊之力)을 배양하여 조선의 독립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민간의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간섭·통제를 완화시켜 자유방임주의적 경제정책을 주장한 것은 자유시장원리에 따른 자본주의 경제정책에 입각한 것이었다.

2) 부국론

부국론(富國論)의 성격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은 〈건백서〉 '經濟以潤富國' 부분이다. 이 부분은 부국이 구체안으로 44개항을, '治武備保民護國 부분은 10개항의 구체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전체의 반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박영효의 국부론'(Wealth of Chosun)이라고 할 수 있다.

박영효는 국가를 부유하게 하는 여러 시책 중 물산의 유통을 가장 중요한 전제로 파악하였다.

"경제로써 백성과 나라를 윤택하게 하십시오. 나라에 있어서 재화는 사람에 있어 몸속의 혈액과 같습니다. 사람이 血과 氣를 보호하고 길러, 그것들이 전신을 흘러 통하고 막혀 흐르지 않는 일이 없으면 건강하고 굳세게 되며 나라가 생산물을 증산하여 운반과 수송을 원활하게 하면 부유하고 윤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산물을 증산하고 그것의 운반과 수송을 원활히 하려한다면 절약하고 검소해야 하며 힘써 일하고 농업, 공업, 어업, 수렵업, 목축 등을 진흥시켜 산과 들, 강과 바다의 利를 취하며 금·은의 화폐를 만들어 상품의 유통과 매매를 원활하게 하고 商社와 은행을 설립하여 저축과 무역을 수월하게 하며 도로와 교량을

정비하여 여행자와 車馬의 편의를 도모하고 강과 바다, 하천과 도랑의 수로를 보수하여 배와 뗏목을 소통시켜야 합니다."

부국=강병과 빈국=약국의 근본을 일반백성이 이러한 유통의 원리, 경제의 원리를 알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므로 이 이치에 밝은 나라는 耕作을 권면하고 공업을 북돋우며 목축을 장려하고 어업과 수렵에 힘써 널리 세계와 통하게 하여 떠도는 백성이 생겨나지 않게 합니다. 영토는 비록 적을지라고 인민은 많고 수명 또한 깁니다. 이는 인민에게 식견이 있고 온갖 기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며 미국, 영국, 독일 등의 나라가 모두 그러합니다. 한편 이 이치에 어두운 나라는 게을러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이웃나라와 통하지 않아 유랑하는 백성이 많습니다. 토지가 비록 넓을 지라도 인민은 희소하고 수명 역시 짧습니다. 이것은 인민에게 식견이 없어 온갖 기물이 없거나 부족해서 생긴 결과이며 야만족과 無來由(말레이족?)족 등 그러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박영효는 경제원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국가와 개인은 가난하게 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 대목은 후쿠자와 유키치의 경제학에 대한 대목을 생각나게 하는 부분이다. 여기에서 후쿠자와 유키치가 생각하는 경제학의 개념을 살펴보자.

후쿠자와 유키치에 의하면 경제학이란

"인간의 의식주 수요를 논하여 만들고, 바꾸며 나누고 사람의 지식예의를 모아 필요한 물건을 풍부하게 하는 소이를 말하는 것. 크게는 한 나라의 정주 출납이며 작게는 한 가정의 일상의 생계로 자연의 법칙에 따르는 자는 부유하게 되고 이를 어기는 자는 가난하게 되는 이치를 밝히는 학문이다. 이 학문에 어두운 자는 부유하다고 해도 그 부가 어디서 왔는 지를 모르고 가난해도 그 가난의 이유를 모르니 부유한 자는 가난하기 쉽고 가난한 자는 부자가 되기 어렵

다. 따라서 경제서를 배우지 않는 자는 백만장자라 하더라도 아무 것도 없는 가난뱅이와 다를 바 없다(정광희, 1998 : 100)."

이처럼 박영효의 부국론에 내재되어 있는 경제의 논리, 부국의 논리는 그가 일본에서 영향을 받았던 후쿠자와 유키치의 견해와 유사한 느낌이다.

또한 건백서에 나타난 부국의 핵심은 근로와 절약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개인에 있어서의 致富의 그 근본은 씀씀이를 줄이고 힘써 일하는 것이며 한 나라의 치부의 근본은 곧 백성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재화를 모으지 않는 것입니다."

박영효에 의하면 국가는 개인의 근로와 절약을 교육 계몽한 뒤 개인의 근로를 통한 생산물의 유통을 원활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가 부국과 강국으로 나누어지는 이유는 이러한 원리를 국민이 알고 있는가 혹은 그렇지 못한가에 있다고 보았다.

결국 經濟以潤富國'의 44개항에 이르는 구체안도 이러한 사상이 바탕이 되어 제시한 부민의 길, 부국의 길이었다.

3) 화폐론

경제사상가들이 직면하는 문제 중 하나는 화폐의 문제이다. 경제에 있어서 화폐의 역할은 무엇이며 개인의 화폐소득과 사회 전체 부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가 등은 경제사상의 중요한 내용이다(박경, 1982 : 280).

실학사상을 포함한 전통적 한국사상은 화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 왔다. 특히 초기 실학자인 성호 이익은 화폐경제가 농업을 망치는 것이라 하여 화폐를 죄악시하였다. 예를 들면 화폐의 남발과 그로 인한 화폐가치의 불안정, 금은의 중국유출, 물가앙등 등의 문제를 들어 화폐의 정리, 화폐경제의 안정 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서구의 경제학을 보더라도 케인즈 이전의 경제사상에 있어서는 화폐를 단순히 교환의 매개물로 보는 '화폐 veil관'을 가졌으나 케인즈에 와서 가치저장의 수단으로서 화폐의 기능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에 비하면 박영효는 화폐에 대하여 훨씬 근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하면 '경제란 돈의 흐름이다'라는 현대적 관점의 경제에 대한 분석으로 화폐가 잘 돌아야 경제가 좋아진다는 식의 논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박영효에 의하면 "나라의 재화는 사람의 혈액과 같은 것이며 풍부한 혈액이 잘 순환되면 건장해지는 것처럼 국가도 생산이 풍부하고 유통이 잘되어야 부유해진다고 생각하였다. 각종 산업을 일으켜 산야와 하해(河海)의 자원을 잘 이용하고 금은재화의 사용과 더불어 육운과 수운을 개발하면 재화는 잘 유통되고 국부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화의 유통은 화폐유통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는 금은전과 동전을 주조하여 당시 남발되고 있던 당오전의 폐단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근대적 금융기관인 은행을 설치하고 이식(利息)을 제한하며 공사채에 대한 연대책임제 즉, 족징(族徵)과 동징(洞徵)을 금지하는 것도 당면문제로서 거론되었다.

이처럼 화폐에 대한 박영효의 사상은 실학파들 보다 훨씬 근대적이며 오히려 현대 경제학적 사고에 근접해 있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4) 사회분업론

박영효는 분업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스미드가 말하는 분업의 이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미국이나 영국, 독일과 같이 분업의 이점이 잘 적용되고 있는 나라는 농경에 근면하고 목축업과 상공업 등에 힘써서 외국으로 진출하기 때문에 실업자가 없으며 인구는 많고 번영하며 국민의 평균수명이 길다고 했다. 국민의 교육수준이 높고 나라가 부유하여 번창하는 원인이 분업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던 것이다. 한편 분업이 발달하지 못한 나라의 국민은 나태하고 이웃 나라와 통교(通交)하지 않으며 유민(遊民)이 많다고 했다.

사람은 혼자서 생활할 수 없고 다른 사람과 상호 의존하는 관계에 있다. 한 사람이 의식주 전반에 걸쳐 자급자족 할 수 있다면 혼자서 생활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업적으로 생산하여 서로 돕는 것으로 설명하였던 것이다. 어떤 사람은 선비가 되어 선비로서의 구실을 하고 어떤 사람은 농민이나 상공업자가 되어 각자의 잉여생산물을 교환함으로써 사람들은 중요한 의식주를 얻을 수 있고 사회의 문명개화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런 반대로 사람들이 모두 자급자족을 일삼는다면 한가지 일에 전념하지 않게 되며 전화(錢貨)는 잘 유통되지 않고 잉여물이 없으며 교통이 발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하여 국민은 빈곤을 면치 못하며 인구는 감소되고 국력은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근검절약하며 맡은 일에 충실해야 하겠지만 위정자는 국내상업과 외국무역을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5) 산업론

그는 여러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하였다. 상공업은 선진적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발전을 기할 수 있고 상업은 무한상통하여 사람들이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라 했다. 모든 산업은 교환에 의하여 발달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사람은 혼자서 생활할 수 없고 다른 사람과 상호 의존하는 관계에 있다.

한편 황무지의 개척, 농잠(農蠶)의 장려, 영농방법의 지도, 양을 비롯한 육축(六畜)의 장려, 상공업, 광업, 임업, 어업, 수렵등 산업의 전 분야에 걸친 균형된 발전과 더 나아가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하여 개발에 힘쓰고 소와 말은 서양의 우량종을 도입하여 번식시킬 필요가 있으며 상공업은 선진적 기술을 습득하여 발전시키고 산림사(山林司)를 두어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치수를 잘하여야 한다고 역설하는 등 농업중심이 아닌 여러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하였다.

또한 모든 산업은 교환에 이하여 발달하는 것으로 보는 등 세상의 부족한 것을 공급해 줌으로써 남거나 부족한 것을 균등하게 하여 사람의 편리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그 물품을 통해 문명개화를 도와주고 사람의 견문을 넓혀서 인류가 서로 사귀어 친하게 되면 능히 태평무사를 이룰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사

람은 혼자만이 자급자족이 거이 불가능하므로 분업적으로 생산하여 각자의 잉여생산물을 교환함으로써 사람들은 중요한 의식주를 얻을 수 있고 사람의 문명개화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자급자족을 일삼는다면 한가지 일에 전념하지 않게 되며 전화(錢貨)는 잘 유통되지 않고 잉여생산물이 없으며 교통이 잘 발달되지 않음으로써 국민은 빈곤을 면치 못하고 인구는 감소하며 국력은 약해질 것으로 보았다.

6) 무역론

박영효는 모든 사람은 근검절약하며 맡은 일에 충실해야 하겠지만 위정자는 국내상업과 외국무역을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민간에서 상사를 설치하여 외국과의 무역을 하도록 도와주고 都賣의 買占행위에 의한 이윤이 독점을 금지하여 紅蔘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여 통역관으로 하여금 상사를 설치하여 수출을 증대시키고 新舊物의 매매규칙을 정하며 夜警을 완화하여 민간의 夜市를 허가하며 京城開市를 철폐하여 외국인을 送出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그것을 경영하게 하자"고 하여 외국인에 의해 조선의 경제가 침해당하는 것을 우려하는 반침략적인 성격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위정자는 국내상업과 외국무역을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민간에서 상사를 설치하여 외국무역을 하도록 보조하고 도매(都買)의 매점행위(買占行爲)에 의한 이윤의 독점을 금지하여 홍삼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여 통역관으로 하여금 상사를 설치하여 홍삼수출을 증대시키자고 주장한 것이라든가 신구물(新舊物)의 미매법규를 정하고 야경(夜警)을 완화하여 민간의 야시(夜市)를 허가하며 경성개시(京城開市)를 철하여 외국인을 송출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그것을 경영하게 하자고 주장한 것은 그의 상업진흥에 관한 구체적 표현이었다.

7) 재정절용주의

재정에 관한 박영효의 사상은 한마디로 재정절용주의(財政節用主義) 이다. 그는 국민에게 납세가 보국안민(保國安民)을 위하여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시킨 후에 농공상인으로부터 조세를 징수하여 치안(治安)·군무(軍務)·영선(營繕)·위생·교육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조세를 개량하여 지군제도를 실시하고 가호의 등급을 정하여 호적을 자세히 기록 합리적으로 징세하여 세입의 범위내에서 경비를 지출하는 '세입위지출의 원칙'을 강조하였다.

국가가 치부하는 근본은 국민을 보호하고 수탈하지 않는데 있다고 설파한 것은 민본사상에 토대를 둔 표현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받은 조세는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는 일에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낭비하는 것은 국민의 재화와 노동력을 강탈하는 행위와 같으므로 이와 같은 정부는 정부라 말할 수 없다고 진언할 정도로 그의 재정사상은 보민호국사상(保民護國思想)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받은 조세는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는 일에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낭비하는 것은 국민의 재화와 노동력을 강탈하는 행위와 같으므로 이와 같은 정부는 정부라 칭할 수 없다고 진언할 정도로 그의 재정관은 보민호국사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8) 사회기반사업

박영효는 한성부 판윤 시절부터 과감한 치도사업(治道事業)을 시행하기 시작하여 최초의 근대적 도로행정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유통경제의 발달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교통문제에 큰 관심을 가져 도로 교량, 수운은 물론이고 민가에서의 육운상사, 단교사(舟橋司) 등의 설치도 강조하고 있었다.

그는 교통이 발달하여야 재화가 잘 유통되고 산업이 발달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부국과 경제개혁의 전제조건으로서 도로와 운수 등 교통문제를 구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는 한편 도량형제도의 통일을 제의하였는데 이것은 상공업뿐만 아니라 징세의 합리화와도 관계가 있다.

이러한 박영효의 사상은 현대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경제개발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사회간접자본(SOC)의 조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조선의 열악한 사회기반 시설 등을 개선해야 조선의 경제적 근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인식에서 조선의 경제적 근대화에 필요조건인 사회기반시설의 조성에 역점을 두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2. 박영효의 경제개혁안

박영효는 궁극적으로는 밑으로부터 민(民)의 참여를 통해 민의 정치의 주체가 되는 개혁을 지향했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부국강병과 문화개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과도기 때에는 위로부터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작성된 것이 『건백서』라고 할 수 있다.

박영효의 경제개혁구상은 19세기 조선에서 논의되고 있는 서로 대립되고 이질적 사유체계들의 융합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서구적 자유와 유교적 질서간의 타협에서 생겨난 것이다(김현철, 2000 : 268).

박영효의 경제개혁안 은 『건백서』 '經濟以潤富國' 44개항에 잘 나타나 있고 그 중 '治武備保民護國' 부분에는 10개항의 구체안 제시되었다.

44개항을 크게 둘로 나누어 보면 첫째,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경제제도 기구의 신설 제도 개혁 유통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한 기관의 신설안 가운데 치도사, 우정국 등을 갑신정변 이전부터 개화파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고 단교사, 상사, 육운상사, 상회 등을 해외무역의 편리를 도모키 위한 기구의 신설과 외국인의 국내상업 침투방지를 위한 조항이 있다.

둘째, 국민 각자의 근로와 생업 진흥책에 관한 것으로 산업의 진흥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특히 외국과 비교하여 뒤떨어진 부분에 대한 진흥책을 제시하였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목축, 광업, 공예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 교사의 지

도와 감독을 받아 이 부분을 개발할 것을 강조하였고 문명국과 비교하여 국내에서도 여점(旅店)과 의복, 음식점의 개설을 권장하였다. 이외에도 보민책 및 재정운영책, 매관매직의 금지, 세금, 부역경감, 군주의 녹에 대한 제한, 외국인 토지 저당 금지 등도 담겨져 있다.

다음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원문의 내용을 번역하여 소개하도록 하겠다(김갑천, 1990 : 265-268).

- 戶口를 정확히 기록하여 세입과 세출을 산출하는데 편리하게 하게 함.
- 地租(토지에 부과하는 조세)를 다시 조정하고 地券(토지소유권의 증명서)를 만드는 일.
- 길이, 양, 무게의 단위를 통일하는 일.
- 백성들이 외국인에게 토지를 파는 것을 금하는 일.
- 법을 만들어 遊民을 금하고 사람의 고용 가격을 일정하게 하지 않는 일.
- 세금을 적게 걷고 관용으로써 그 법을 실행하여 치우침이 없게 하는 일.
- 농업과 蠶業을 장려하고 영농업과 농기구 사용의 이로움을 가르치는 일.
- 양을 기르게 하여 앞으로의 의복을 만들게 하고 외국인을 고용하여 양을 기르는 방법을 가르치게 하는 일.
- 여섯 가지 가축을 의무적으로 기르게 하는 일.
- 공업과 상업을 일으키고 그 방법과 기술을 배우게 하는 일.
- 어업을 융성하게 일으켜서 무궁한 이익을 얻게 하는 일.
- 수렵을 융성하게 일으켜서 백성의 위험을 구제하는 동시에 팔 수 있는 품목을 얻게 하는 일.
- 山林司를 설치하여 산림과 하천, 연못을 수선하고 다스려서 목재·땔감·물고기·자라의 결핍을 면하게 하고 또한 산과 하천의 沙汰로 인한 전답의 피해를 막는 일.
- 堤防司로 하여금 제방을 고치고 쌓게 하여 수해를 면하게 하고 물을 댐으로써 가뭄을 면하는 일.
- 濬川司로 하여금 항상 수리를 다스리게 함으로써 홍수나 붕괴를 면하게 하고 배나 노젓는 배의 통행을 편하게 하는 일.
- 治道司를 두어 항상 길과 다리를 고치게 하는 일.

- 백성이 개인의 돈으로 물길을 트고 길을 수리하고 다리를 설치하여 해당 장소에서 해당 장소에서 貰錢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는 일.

- 내륙과 섬지방의 황무지를 개척하는 일.

- 금·은·동·철·석탄의 광산을 크게 열고 외국인을 고용하여 감독케 하는 일.

- 금·은·동·철을 제조하여 當五錢[1]의 폐단을 구제하는 일.

- 통용되고 있는 화폐를 녹이는 것을 금하는 일.

- 통용되고 있는 화폐의 革罷로 인해 백성의 사유재산이 침해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하는 일.

- 은행을 세우는 일.

- 이자를 제한하는 법을 만드는 일.

- 郵程局을 다시 설치하는 일.

- 舟橋司로 하여금 선박에 대한 정책을 중흥케하고 등대와 浮漂를 바닷길에 설치하는 일.

- 백성이 상사를 설립하는 것과 외국의 각 부두에서 장사하는 것을 돕는 일.

- 백성이 육상운송 상사를 설립하는 것을 돕거나 혹 관청에서 설립해서 육지내의 상품수송을 편리하게 하고 또한 절도사건이 발생우려를 없애는 일.

- 京城이 開市場[2]을 철폐하고 외국인들을 내보내어 우리나라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경영하게 일.

- 밤에는 도로변에 등을 설치하여 행인들을 편하게 하고 절도사건이 발생할 우려를 줄이는 일.

- 통행금지를 풀어 백성들이 밤에 장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

- 관에서 통용화폐의 교환가치와 갖가지 물품의 가격을 정해서는 안 되는 일.

- 어떤 물건이든지를 막론하고 도매상이 이익을 독점 하므로써 백성의 생활을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 紅蔘의 판매금지를 풀어 譯官으로 하여금 상사를 세워 홍삼의 출품을 증가

---

1) 1883년(고종 20년)에 국가재정의 궁핍을 구하고자 주조하여 1894년 군국기무청에서 새로운 화폐를 제정할 때까지 사용되었음.

2) 다른 나라와의 통상을 허가하여 시장을 개방하는 곳.

하게 하는 일-서북인들로 하여금 장백산의 목재를 취하게 하고 그 대신 어린 나무를 심게 하는 일.

- 청나라의 비단·도자기·일본의 칠기·그림·조각·구리·철·화훼·정원 등의 교사를 고용하여 인민을 가르치는 일.

- 인민에게 여관·의류점·음식점을 많이 설립하도록 장려하는 일.

- 새롭고 낡은 물건의 매매의 규정을 정하여 매매를 편리하게 하고 절도가 발생할 우려를 적게 하는 일.

III. 20세기 초 제주에서의 박영효 경제사상의 실천

1. 20세기 초 제주의 농업

1) 자연환경

생산 기술이 미약한 농경사회일수록 그 사회의 생산력은 자연 조건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사회에서의 생산 기술의 발전이나 생산력 증가의 핵심은 자연 환경을 극복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는 척박한 토양과 태풍 등과 같은 자연환경에 의해 농업생산은 물론 사회·문화의 형태도 결정되었다. 제주도가 '자급자족적인 저생산의 농업생산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주도의 자연환경이 제주도 농업생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에 기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의 기후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바람이 많고 강수량이 많으며 아열대성 기후에 속한다. 동안형 아열대 기후이기 때문에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받는 한편 계절풍 기후가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제주도 중심부에 있는 한라산의 영향으로 면적에 비해 지역적으로 기상 조건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즉 동, 서, 남,

북의 기류, 일조, 기온, 강수, 바람 등의 격차 및 변화가 심하다.

제주도의 토양은 현무암질 풍화물과 화산 회토로 된 화산토가 대부분이다. 제주도 전통사회에서는 화산회토가 변질된 '된땅'이라 부르는 고화산토에서만 보리·조농사가 가능했다. 섬의 남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 면적의 83%를 차지하는 화산회토 지대는 산성에다 잡초 발생이 왕성하여 서속류를 재배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입경 크기에서 미사식양토로 분류되는 화산회토로서의 '뜬땅'은 투수성과 관계된 공극율이 70%가 넘는 외에 빗방울의 충격이 있을 경우 곧 표면 공극을 메워 초기에 많은 수량, 다량의 토양 성분, 가용성 염류, 토양 유기물과 함께 바다로 유실되어 버린다. 그러나 이 화산회토는 일단 물을 머금으면 일반 재(灰)와 같이 큰 공극률로 인하여 쉽게 투수되어 함수량이 낮아진다. 산악지대의 넓은 피복층을 지닌 제주도는 육지지역과 비교해서 그 피복층이 지온을 높여, 식물의 생육과 유기질 분해, 미생물의 활동을 높이는 유리한 부식질이 3배나 된다고 한다. 그러나 역시 끈기가 없는 화산회토인 까닭에 낮은 보수력을 가지므로 육지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훨씬 낮은 약 10% 정도의 낮은 함수량 만을 가진다. 이러한 토양의 낮은 함수량과 빈약한 유기질 함량 그리고 가뭄은 제주도의 농업을 제약하는 결정적 요소였다.

2) 제주도의 농업지역구조

'농업지역구조'란 농업환경이 공간에 투영된 결과물로 지역 구조의 변화는 농업 환경 변화의 산물이다. 따라서 지역 구조의 변화를 주도한 작물의 지리적인 분포변화는 농업 환경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농업지역 구조의 확인은 지대도출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지역 구분 결과로 표출된 농업지대는 우연한 결과가 아닌 공간상의 질서로, 농업지역 제사상들의 유기적인 결합관계가 지표 상에 반영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농업지대의 도출은 작물 재배 면적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농작물은 농경지에서 일정한 시·공간상에 다른 작물과 배타적으로 존재하며, 농민의 의사 결정 과정 중 최종적인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김기혁(1994 : 1-17 ; 1991 : 109-125)은 재배 작물을 통한 지역 구조

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농업의 지역구조를 설명하였다. 그에 의하면 제주도는 조선전기 정의현와 대정현 즉 섬을 동에서 서로 삼등분 하였을 때 동쪽과 서쪽은 제4지대에 속하고 가운데 부분 즉 제주읍과 정의, 대정현 중 가운데 부분은 제3지대로 분류하였다. 제3지대는 6개 식량 작물(米, 麥, 豆, 粟, 稷, 黍)중 조만이 제외된 곳이고, 4지대는 작물에 있어서 뚜렷한 특화를 보이지 않는 곳이다. 조선 전·후기 지역화를 주도한 작물의 분포변화를 이용하여 농업지대의 변화를 본 결과 7지대로 분류했는데, 제주도는 제3지대에 해당한다. 제3지대는 함경도와 강원, 충청지방의 산악지대, 동해안과 충청지방의 해안지역 일부 그리고 제주·정의·대정 모두가 이에 포함된다. 제3지대의 특징은 전기에는 미작이 발생하였다가 후기에는 미작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이상에서 보면 제주도는 보리, 조 등을 주로 하는 전작 잡곡작물들을 재배하는 도서지역의 전작지대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함경도, 강원도 산간 등의 전작지대, 혹은 울릉도와 같은 도서지대의 혼합형으로 제주도를 분류할 수 있다.

3) 제주도 농업의 특성과 현황

제주도의 토양은 지역에 따라서(화전 지역뿐 아니라 중산간 마을까지도) 10년 윤작이 성행하였을 정도로 척박하다. 이처럼 낮은 토지생산성과 제주도 토지 중 22.5%에 달하는 미개간지의 존재로 토지의 경제적 가치는 매우 낮았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육지부의 논농사에 비해 제주도는 토지보다도 노동력이 농업 생산의 중요한 생산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20세기 초 주요 재배 작물로는 미곡과 대맥, 소맥, 맥이며 두류로는 대두·소두이고 잡곡은 조·피·옥수수·메밀·팥 등이고, 기타 감자·고구마·무·오이·배추 등을 재배하였다. 주요 작물의 재배 면적과 총생산량, 10a 당 생산량을 살펴보면, 맥류는 재배면적이 21,556.5ha, 수확고는 321,169石이었다. 두류는 재배면적이 2,246.3ha이고 수확고는 8,359석이며 10a당 수확량은 0.37석으로 다른 작물에 비해 저조하였다. 조는 맥류 다음으로 재배 비중이 높은 잡곡으로 재배 면적이 15,259ha, 생산량은 20만 6천석, 10a당 수확량은 1석3두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이외에 옥수수·피·팥·메밀 등은 총 재배 면적이 18,700ha로 당시 경지 면적의 45%를 점하고 있었다(남인회, 1985 : 38). 이러한 생산량은 토지생산성 측면에서 육지부 논농사 지역에 비해 열악한 형편이었고 동일 작물 대비 생산량을 육지부 밭농사 지대와 비교하더라도 많이 떨어진다. 이처럼 농업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우선 토지생산성이 육지부에 비해 매우 낮았고 작물재배구조, 농업기술, 농기구 등을 포함한 농업생산구조가 노동생산성의 발휘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저생산구조의 악순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진다.

2. 박영효 경제사상의 실천

유배인들이 지역에 미친 영향을 지역 나름에서 해석하고 형상화하는 것을 '유배문화'라고 한다면 제주도는 다른 지역보다 '유배문화'에 대해 관심이 높다. 이것은 다른 어떤 지역 보다 제주도가 역사적으로 볼 때 유배인의 숫자가 많았고 그들의 행적도 다양했기 때문이라고 보아진다.

그러나 유배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유배문화에 대한 오해나 과장의 측면도 많은 게 사실이다. 분명 사실보다 과장되고 왜곡된 측면도 있다[3]. 유배인의 유교적 지식을 앞 세워 유배지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려는 가식적인 행태가 이 범주에 속한다.

이는 모든 유배인들이 다 그렇지는 않았지만 유배인=고급지식인으로 여기는 그런 오해에서 유배문화에 대한 오해도 비롯된다(고석규, 2004).

유배인들 중에는 섬사람들을 하대하고 섬의 문화를 경멸하는 경향이 내재된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다. 이들은 중앙정치로의 복귀만을 열망하며 지역에 대한

3) 최근 제주도에서는 '유배박물관'을 조성하는 가 하면 유배인을 소재로 하는 축제나 기념행사가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고석규(2004)의 견해를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유배인에 대한 일방적인 숭배는 자칫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는 꼴...주민들의 주체적 입장에서 유배문화에 접근함이 필요 …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 중요…."

관심도 없고 지역민들과의 문화적 교류도 없었다고 보아진다. 다만 그들의 정치적 위세 자랑이나 유학적 지식을 뽐낼 따름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박영효의 제주도에서의 유배행적은 남달랐고 학술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여겨진다.

즉 박영효의 정치적 위세나 엘리트적인 지식을 자랑함이 없이 지역주민 지위 상하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에서든지 자유롭게 교류하며 박영효가 가진 지식 경험 등을 전파, 보급하는데 힘썼다. 이 과정에서 더욱 값어치있는 것은 바로 '실천'이다. 이 실천은 박영효 자신의 주체적 실천이며 제주도의 현실과 상황을 고려한 실천이라는 데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 근대감귤

조선시대에도 제주에는 많은 감귤원이 있었다. 그러나 조정에 진상품 생산을 위한 것이어서 주민들이 실생활, 소득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관의 통제에 의한 재배로 그 민폐가 막심했다. 감귤원을 맡은 농민이나 감귤나무가 있는 농민들은 생산량을 채우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일부러 귤나무를 고사시키는 일도 잦았다고 한다. 이러한 진상제도는 조선조 고종 31년(1893년)에 이르러 폐지되었으나 그후에도 농민들은 감귤재배에 큰 관심이 없었다. 이러한 제주감귤은 일제 강점기를 전후해 전환기를 맞는다. 이 때가 경제적 소득을 목적으로 감귤이 재배되기 시작한 시기다. 근대적 의미의 제주감귤재배의 시작이며 그 효시는 박영효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영효와 같은 개화파의 사상적 중심인물인 유길준은 그의 저서 「지제의(地制議)」에서 상업작물의 재배가 민생을 두텁게 하므로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귤과 차의 재배를 장려하여 수출작물로 육성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서 보면 개화파의 경제사상 속에 이미 수입대체작물 나아가 수출유망작물로 감귤재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개화파의 핵심인물인 박영효도 감귤재배의 중요성에 개화파의 경제인식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박영효는 일본망명 생활 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감귤재배

의 중요성을 확신하였을 것이고 제주도에 와서 일본 감귤재배지역의 기후와 제주도 기후의 유사점을 발견하여 손수 시험적이나마 실천해 보려 하였던 것이다.

박영효는 1907년 제주에 귀양 온 이후 제주시 구남천(현 구남동)에 4만여평의 토지를 마련하고 여기에 각종 원예작물과 함께 일본에서 들여온 개량감귤를 재배하였다고 한다. 애석하게도 현재 남아 있는 나무는 한 그루도 없다. 이와 함께 주위농가에게도 개량감귤 재배를 보급하려 하였으며 평소 교류가 있는 제주인사들에게도 적극 권장하였다. 이후에 제주도의 근대감귤 농업은 20세기초 프랑스 출신의 타케 신부가 효시에 의해 부흥하기 시작하였다. 제주감협과 농촌진흥청 난지농업연구소, 천주교계에 따르면 타케(Emile Joseph Taquet, 1873~1952, 한국명 嚴宅基) 신부는 1902년 서귀포 하논성당에 첫 부임한 이후 1915년까지 서홍(당시는 烘爐)성당에서 선교활동과 식물채집을 하는 동안 일본으로부터 온주밀감(溫州密柑) 14그루를 들여와 서홍성당 일대에서 재배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타케가 도입해 심은 온주밀감 14그루는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대부분 전해졌으나 지금은 옛 서홍성당에 1그루만 남아있는 실정이다.

2) 원예작물

박영효가 제주의 농업구조에 미친 영향 중 가장 커다란 공헌은 원예작물의 재배시험과 보급확산이다. 박영효는 개량감귤을 비롯하여 감·비파·대추·석류 등 과수와 양배추·토마토·무·당근 등 여러 가지 작물들을 농민들과 함께 시험 재배하였다. 이러한 작물들 중에서 일부 실패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성공률이 높은 편이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성공한 작물에 대해서는 주변 농민들에게 적극 권장하여 심도록 하였다(양진건, 1999 : 229).

당시 제주도의 농업은 낮은 토지생산성과 낮은 노동생산성으로 '봉건적인 저기술·저생산성·저생산 농업생산구조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제주도의 농업구조는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보리·조의 밭작물 재배가 절대적이다. 즉 자급자족용 식량생산을 위한 주곡생산이 거이 전부였던 것이다. 이로 인

해 농가경영의 근대화는 요원한 것이며 저개발상태에서의 탈피를 위한 농촌소득의 축적도 제주도 농촌과는 거리가 먼 얘기였던 것이다.

박영효는 이러한 제주도 농업구조에 대한 상황파악의 토대 위에 일본 망명 생활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발휘하여 제주도 농업구조의 변화를 시도하였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주도 기후와 일본 기후와의 유사성에 착안하여 당시로서는 선진농업지의 농업구조를 도입하려 하였다. 즉 재배작물의 다양성을 적용시켜 보려고 한다거나 재배작물의 선정 과정에서도 당시 자급자족적인 주곡작물 위주의 작물재배에서 탈바꿈하여 외부소비를 겨냥한 혹은 판매를 위한 작물, 수입대체 혹은 수출유망 작물 등을 재배하게 하여 농가에 현금구득이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 농가소득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작물들을 선정, 시험재배하고 농가에 보급시키려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박영효의 노력이 얼마만한 성과를 거두었는가에 대해서는 좀더 실증적 고찰과 논의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자급자족적, 저생산의 봉건적 농업생산구조를 가진 제주도 농촌에 자본주의적 농업생산기법을 도입하여 제주도 농촌의 근대화를 견인해 보려하였다는 역사적 의의는 무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3) 사회기반시설과 오일시장

박영효는 漢城府 判尹시기부터 과감한 치도사업(治道事業)을 시행하기 시작하여 최초의 근대적 도로행정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유통경제의 발달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교통문제에 큰 관심을 가져 도로, 교량, 수운은 물론이고 민가에서의 육운상사, 단교사(舟橋司) 등의 설치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박영효의 사상, 행적은 현대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경제개발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사회간접자본(SOC)의 조성이라 하겠다. 제주도 개발과 근대화에 관심이 있었던 박영효로서는 당연히 제주도의 근대화에 필요조건인 사회기반시설의 조성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앞서의 문제들과는 달리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박영효의 노력은 다른 측면에서 나타난다. 즉 박영효와 교류하던 제주지역 유지들에게 사회기반

시설 조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거나 혹은 박영효의 높은 신분 덕택에 중앙에서 파견된 고급관리들과 자유롭게 내왕하는가 하면 정책자문역 할 수 있는 이점을 활용하여 제주도 근대화를 위한 도로건설, 유통 개선을 위한 시장 개설 등을 건의 혹은 의견을 적극 피력하는 형태로 박영효 경제사상의 실천을 도모하였다.

대표적 사례가 당시 군수로 부임했던 윤원구와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박영효는 중앙에서의 높은 정치적 위치, 고종의 부마라는 사회적 신분 등으로 인해 다른 유배인들과는 달리 중앙에서 파견된 정부관리와의 관계가 원활하였다(제주도, 1988 : 142-144). 당시 제주군수 윤원구와의 관계도 이러하였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박영효는 윤원구의 정책자문역을 하며 제주도 근대화를 사회기반시설 조성에 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이 시기 처음 건설된 제주도 오일장은 이러한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제주도 오일장은 尹元求 군수가 민간의 물자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주시를 시작으로 삼양, 이호, 외도, 애월, 조천, 김녕, 세화, 서귀포 등에 개설한 것이 시초이다. 오일장의 개설은 제주도 각 농촌 마을까지 상거래의 비중이 활발해 지는 계기가 되었다. 농산물, 해산물 등을 망라하여 생산자인 농민이나 그 가족이 직접 거래에 참가하여 생산물을 판매하고 생필품과 같은 상품을 구매하게 된다. 제주도 오일장의 개설은 제주도 농촌의 거래활성화, 유통경제의 활성화에 커다란 계기가 되었고 오일장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로개설, 도량형 통일, 화폐의 통일, 적정발행 등의 각종 경제기반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자극시키는 결과를 낳아 이의 실현을 앞당기는 단초가 되었다고 여겨진다. 결국 박영효의 사회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사상은 간접적이나마 이와 같은 형태로 실현되었던 것이다.

1909년 제주도 오일시장 현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度支部司稅局(1909), 『韓國各府郡市場狀況調査書』).

주성시장(州城市場). 매월 2, 7일 (월 6회) 개시. 제주도 제주면(읍, 시) 소재

삼양시장(三陽市場). 매월 1, 6일 (월 6회) 개시. 제주도 제주면(읍) 삼양리 소재.

회령시장(會寧市場). 매월 4, 9일 (월 6회) 개시. 제주도 소재.

두모시장(頭毛市場). 매월 5, 10일 (월 6회) 개시. 제주도 소재.

애월시장(涯月市場). 매월 3, 8일 (월 6회) 개시. 제주도 애월면 소재.

정의읍내시장(旌義邑內市場). 매월 1, 6일 (월 6회) 개시. 제주도 정의군 소재.

대정읍내시장(大靜邑內市場) 또는 대정시장(大靜市場). 매월 1, 6일 (월 6회) 개시. 제주도 대정군 (남제주군 대정읍) 소재.

창천시장(倉川市場). 매월 5, 10일 (월 6회) 개시. 제주도 대정군 소재.

도순시장(道順市場). 매월 4, 9일 (월 6회) 개시. 제주도 대정군 소재.

하효시장(下孝市場). 매월 3, 8일 (월 6회) 개시. 제주도 정의군 소재.

의귀시장(衣貴市場). 매월 2, 7일 (월 6회) 개시. 제주도 정의군 소재.

고성시장(古城市場). 매월 5, 10일 (월 6회) 개시. 제주도 정의군 소재.

명월시장(明月市場). 매월 4, 9일 (월 6회) 개시. 제주도 소재.

별방시장(別防市場). 매월 5, 10일 (월 6회) 개시. 제주도 소재.

조천시장(朝天市場). 매월 3, 8일 (월 6회) 개시. 제주도 신좌면(조천면) 조천리 소재.

4) 농촌계몽운동

박영효는 제주도 농촌의 계몽에도 뜻을 두어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반상귀천을 가리지 않고 따뜻이 맞아 대화를 나누고 친절하게 모든 것을 교시해 주었다고 한다. 기회 있을 때 마다 낡은 제도와 인습 등 제주도 근대화를 가로막는 저해요소들을 과감히 타파하여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한 길이라고 강조했다(제주도, 1988 : 142-144).

구체적으로 농촌의 의식주개선과 같은 식생활 개량에서부터 제주도 각 마을의 식수, 농업용수, 도로, 청소년 교육, 주거환경 개선, 보건 위생 개선 등에 이르기까지 농촌생활 개선 전 분야에 대한 그의 해박하고 근대적인 사상을 보급시켜 나갔던 것이다. 양반에게는 신분를 고려하지 말고 상공업 등 여러 산업에의 종사할 것을 주지시키는가 하면 농민들에게는 근로의식의 고취, 교육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신성여학교 설립에 자금과 여타 도움을 주었던 것도 여

성 신분타파, 여성교육에 대한 박영효의 근대적 사상의 한 단면이라고 해석된다.

Ⅳ. 맺음말

제주도는 지역의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유배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는 제주문화의 원류와 정체성을 찾는 노력의 차원에서 유배인들이 제주에 미친 여러 가지 영향들을 분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의하여야 할 점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앞서 본문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유배인, 유배문화에 대한 개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모든 유배인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유배인=고급지식인으로 여기는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과장되고 왜곡된 측면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유배인의 유교적 지식을 앞세워 제주도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려는 가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이러한 유배인에 대한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숭배는 자칫 제주도 문화의 정체성을 버리는 꼴이 됨으로 제주도민들의 주체적 입장에서 유배문화에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바라보는 박영효의 경제사상과 유배지 제주에서의 그의 행적은 남다르다.

첫째, 유배인 박영효가 20세기 초 제주도 농촌에 미친 영향은 제주도의 유배문화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모범적 사례 중 하나였다고 인정할 만하다는 것이다.

그리 길지 않은 기간동안이었지만 박영효가 보여준 적극적이고 솔선수범하는 태도와 지역주민들과의 친화력, 지역현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개입 등은 우리가 제주도의 유배문화에서 기대하고 또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박영효가 20세기 초 제주도에 미친 여러 가지 영향이 다른 유배인들과는 달리 경제적 측면이 강하다는 점이다. 혹자는 박영효가 제주에서 '근대화운동'을 하였다고 까지 한다. 박영효의 유배행적이 과연 제주의 근대화운동으로 까지

접근하였겠느냐 하는 것은 더 많은 자료검토와 다양한 논의가 있은 다음에야 결론이 날 문제이지만, 박영효가 감귤, 원예작물 보급 등의 농업구조 개편, 의식주 개선 등 농촌계몽 사업, 각종 사회기반시설 조성 등을 강조하고 적극 노력하였다는 점은 박영효가 제주도 농촌의 경제적 측면의 변화에 주력했었다는 사실을 추측하게 한다. 특히 지금까지 나타난 다른 유배인들의 행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점에서도 역사적 의의가 있다.

셋째, 박영효의 제주에서의 실천은 제주도 현실상황을 고려하고 제주도 실정에 적합한 적용이라는 것이다. 일부 유배인들 처럼 제주도민을 하대시하고 제주문화를 멸시하는 의식을 숨긴 채 제주도 현실과는 전혀 무관한 유학적 지식만을 뿜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근대적 경제사상과 일본 생활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제주의 자연환경, 농업구조, 제주도 미래에 대한 식견을 접목시킨 구체적이고 애정 어린 경제사상적 개입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박영효의 경제적 측면의 개입은 제주도 개발, 근대화 역사에 대한 색다른 지평을 열어 준다. 즉 1960년대 이후로 시작되는 제주개발의 역사는 일제시대를 포함한 그 이전의 역사적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사실 전개나 논리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어설프고 설득력이 모자란 느낌을 준다. 그러나 이 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20세기 초기에도 제주도 개발, 근대화에 대한 나름의 인식과 노력이 있어 왔다. 현대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 나름대로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며 진지한 측면도 많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세밀하고 실증적인 사적 고찰이 절실히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강대민(1986), 「한말 일본유학생들의 애국계몽사상」, 『논문집』, 경성대학교.
고석규(2004), 「유배에 대한 상식과 사실」, 『한국역사연구회』, 웹진.
탐구당(1970), 『고종, 순종실록』.
김갑천(1990), 「박영효의 건백서」, 『한국정치연구』,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김기혁(1991), 「조선시대 농업지대의 변화에 관한 연구」, 『지리학』 26권 2호.
김기혁(1994), 「일제시대 한반도 농업의 지역구조 연구」, 『부산지리』 3호.
김병하(1983), 『한국경제사상사』, 서울 : 일조각.
김연수(1984), 「개화당의 정치개혁안 연구-박영효의 상소문을 중심으로」, 조선대 석사논문.
김영호(1968), 「한말서양기술의 수용」, 『아세아연구』 31호.
『김옥균 전집』 서울 : 아세아문화사.
김주성(2000), 「김옥균·박영효의 자유주의 정신」, 『정치사상연구』, 한국정치사상학회.
김현철(1999), 「박영효의 1988년 상소문에 나타난 민권론의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
김현철(2000), 「박영효의 보민과 민권신장 구상」, 『정치사상연구』, 한국정치사상학회.
김찬흡편저(2003), 『20세기 제주인명사전』, 제주문화원.
남인희(1985), 『제주농업의 백년』, 제주 : 태화인쇄사.
박 경(1982), 「경제사상의 연구방법에 대한 소고」, 『경영논집』 제4권 2호, 충남대 경영경제연구소.
『박영효이력서』, 日本宮內廳 보관.
국사편찬위원회(1969), 『승정원 일기, 고종편』.
양진건(1990), 「제주유배인의 개화교학활동 연구」, 『민족문화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양진건(1999), 『그 섬에 유배된 사람들』, 서울 : 문학과 지성사.
이기준(1985), 『한말서구경제학도입사연구』, 서울 : 일조각.
이상달(1990), 「박영효의 개화사상에 대한 연구」, 『교육논총』, 동국대학교.
국제연합회 편찬(1949), 『일본외교문서』 21권, 27권, 28권.

전봉덕(1978), 「박영효와 그의 상소 연구서설」, 『동양학』,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정광희(1998), 「후쿠자와 유키치의 학문관에 대한 일 고찰」, 『교육과학연구』28권 1호, 이화여대.
제주도(1988), 『濟州先賢誌』.
진관훈(1999), 「일제하 제주도 농촌경제의 변동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최덕수(1988), 「박영효의 내정개혁론 및 외교론 연구」, 『민족문화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황 현, 『梅泉野錄』.

Park Yong-Hyo's Economic Thought and Its Practice in Jeju

Jin, Kwan-Hoon · Ko, Kwang-Myong

〈Abstracts〉

This article reviews the economic thought of Park Yong-Hyo(1861-1939) and its practice process on Jeju area, where he was exiled for 1 year. Park who was well-known as one of the leaders in the Enlightenment Party of the late Chosun dynasty time era(late 19th century), lived in exile at Japan due to two political change, and was exiled in Jeju for his third banishment. Although he remained in Jeju only one year, he influenced on Jeju's policy, agriculture, education and rural life, etc., in spite of the end of his exile life in Jeju.

Park wasn't a economic professional, but he received the capitalistic western economy during his visitation on U.S. and Japan, so it is said that he had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about the economy theory. His economic thoughts and reformational economy theory were reveal on an appeal about internal affairs of Chosun dynasty, so-called Kunbakso.

Summing up the Park's economic thoughts are follow: 1) a democratic and liberal economic viewpoint, 2) the social specialization theory, 3) he highlighted the financial practicalism as well as monetary theory, distribution reasonableness, unification of weights and measures, tax reasonableness, and its application on domestic economic reform.

Even though he'd finished his exile time, Park remained at Jeju and hoped to test his economic thought. For instance, he catched that Jeju's climate was similar to Japan's in terms of warm weather and much rain, and judged the desirable agriculture method as the special horticulture

farming rather than the common farming style. And then he diffused reformed citruses, tomatoes and eggplants throughout Jeju community.

Key word : Park Yong-Hyo, economic thought, Jeju community, agriculture, domestic economic reform.